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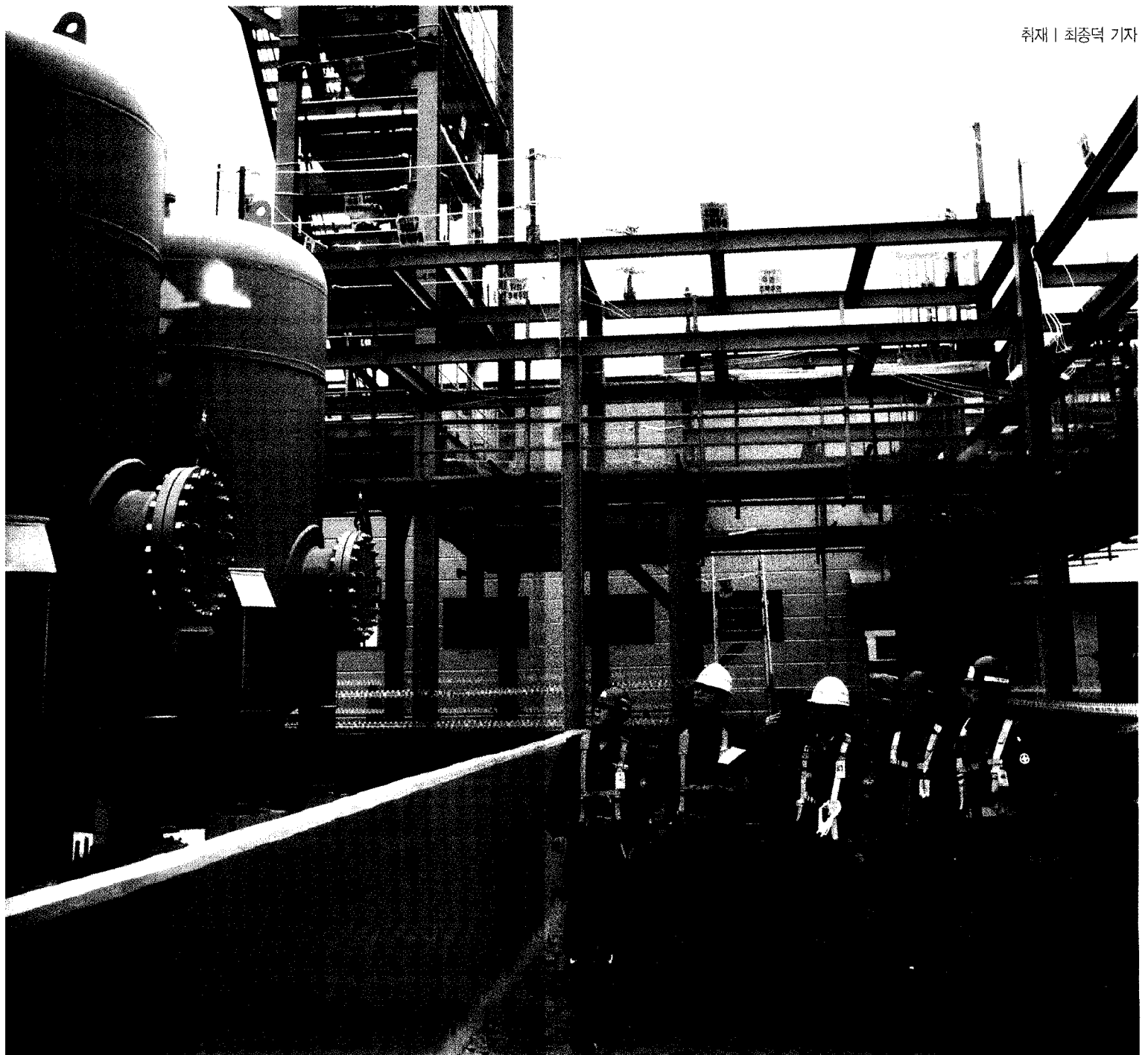
자율이 있는 안전! 실천이 따르는 무재해 현장!

(주)이테크건설 플랜트사업부 KNH-PROJECT 현장

1984년에 설립하고 이테크건설이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한지 10년, 이테크건설은 세계적인 경제한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100%의 매출액을 목표세울 만큼 건실한 건설회사다. 매스컴에서 부실 건설사 퇴출이라는 보도가 나오나 이테크건설과는 상관 없는 일, 오늘도 플랜트사업에 주력하며 안전으로 경쟁력을 갖춘다.

“KNH-PROJECT” 현장(서원석 현장소장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일본 Sumisei Chemical이 발주한 고순도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장 건축현장으로 철골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이다.

취재 | 최중덕 기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안전제일 주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은 본사의 관심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식이 낮아 안전사고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테크건설은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나 PM(사업부장)에서부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을 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Mail과 유선을 통해 귀가 아프도록 전달된다. 소규모 현장이라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관심 때문에 때론 힘들 때도 많다고 이곳 관계자들은 말한다.

안전이 최고이며 안전이 제일이라는 이테크건설 경영자의 마인드는 전 현장으로 전파되어 내려간다.

“준공이 임박한 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도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공사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무리하게 하다보면 안전은 물론이고 품질도 안 나온다. 그게 회사에 더 큰 손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화는 이테크건설에서 안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예방안전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후관리도 없는 것이다. KNH-PROJECT 현장에서는 사후관리란 없다. 오로지 사전 예방관리만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 혈압관리도 사전 예방을 위한 선조치 안전활동이다.

근로자의 혈압 측정을 통해 정상 혈압(80~120)을 벗어난 고혈압 근로자에게는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배치는 있을 수 없다. 1미터 이하의 안전한 장소에서의 작업을 허락하여 고혈압으로 2차 재해, 3차 재해로의 예방을 위함이다.

다음은 안전작업하기서, 명일 작업에 대해 협력사에서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하는 사전 안전조치이다. 실천하지 않은 안전은 무용지물에 불과한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곳 현장입구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은 안전작업하기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당일 작업 전, 작업 후 30분 가량 주변 정리정돈, 매일 2회 본사 품질안전팀의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지원 및 현장 안전관리 상태 점검,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기술지도 등은 대표적인 예방안전 활동이다.

사고의 대부분이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시설이 불안정하다면 이 또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리 만큼 꼼꼼함을 보여주는 KNH-PROJECT 현장의 안전활동이다.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현장

현장이 작으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바탕이 되고 있는 KNH-PROJECT 현장에서는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감성안전의 효과는 크다. 화려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어도 따뜻하고 정감있는 말 한마디는 바로 마음을 연다.

“근로자 분들과 말 한마디라도 정감 있게 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가깝게 다가갔을 때 근로자 분들도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줍니다. 감성안전이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보다 추워, 평균 겨울 기온이 영하 15도이고 바다가 가까워 바람도 세찬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안전하게 일해주는 근로자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이 곳 사람의 마음이다. 커피 한 잔에 얼었던 몸이 풀리고 정감있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는 KNH-PROJECT 현장은 무재해 준공으로 화답 될 것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산업재해의 온상이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KNH-PROJECT 현장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무재해 준공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



서원석 현장소장

오늘의 무재해, 내일의 무재해 준공은 근로자 모두가 이룩할 금자탑

안전에는 질서가 있어야 보장되고, 실천할 때 안전은 무재해로 이어집니다. 무재해는 안전관리자 혼자만의 힘으로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직원과 협력업체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때 무재해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다가오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관리되지만 후미진 곳이나 마무리 작업이 소홀한 곳은 안전사고의 개연성은 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작업전에 안전작업 계획에 따라 돌다리를 두드리며 작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로자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나의 안전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현장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는 마음 자세가 요구되고, 관리자는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현장 방침을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잘 유지하고 사고 없는 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추위 속에서도 하나 하나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근로자분들의 흘린 땀방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준공 그 순간까지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멋진 마무리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전병국 대리

가족 같은 현장 만들터

안전은 사고가 안 나고 재해가 없다면 존재가치가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사고는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은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켜져야 할 것이고 사고는 예방되어야 합니다.

우리 현장은 작지만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고하나 없었고 앞으로도 무재해를 이어 갈 것입니다. 함께하는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만날 때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듯 공손한 마음으로, 형님과 동생을 대하는 감성안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근로자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 규모가 작아서 근로자분들의 안전의식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 안전기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나가 선진국형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새롭게 도입하고 싶은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지금현장이 무재해로 끝이 나고 저의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